



**한가롭게 풀 드는 노루가족** 지난달 31일 제주시 용강동 제주마방목지에서 노루가족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다.

## ‘제주 준보훈병원 도입’ 근거 법안 국회 통과 김한규 의원 발의… 의료원·대학병원 활용·지정

보훈병원이 없는 제주도에 지방의료원·국립대병원을 활용한 ‘준보훈병원’ 지정이 가능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보훈병원 부재지역에 ‘준보훈병원’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8건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며, 지원 범위 역시 급여 및 약제비 전액 또는 감면 지원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비 대상은 상이유공자, 감면 대상은 비상이유공자·배우자·선순위 유족 등이 해당된다.

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병원의 경우 대상자가 한정적이고 비급여 항목 등의 의료비 지원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2024년 총선 공약으로 지방의료원 및 국립대병원을 활용해 보훈병원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준보훈병원’ 도입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준보훈병원이 지정되면 국비 및 감면 대상자 모두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며, 지원 범위 역시 급여 및 약제비 전액 또는 감면 지원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비 대상은 상이유공자, 감면 대상은 비상이유공자·배우자·선순위 유족 등이 해당된다.

오소범기자

# “한 돈 100만원 넘어”… 금값 폭등에 금은방 ‘한산’

## 순금 한 돈 105만9000원… 1년 사이 두 배 올라 시세 문의만 늘고 귀금속 구매 손님은 발길 끊겨 소량금 관심↑… 1g 콩알금·반돈 돌반지 ‘인기’

금값이 연일 치솟으면서 귀금속을 찾는 손님이 줄어 금은방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순금 한 돈(3.75g)의 가격은 지난 21일 처음으로 100만원을 돌파한 뒤로 현재까지 100만원을 웃돌고 있다. 이에 부담스러운 ‘한 돈’ 대신 ‘반 돈(1.875g)’ 또는 1g 등 소량의 금을 구매·선물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순금 한 돈 가격은 105만9000원

이다. 6개월 전(64만3000원)보다 64%, 지난해 1월 30일(54만6000원)보다 94% 증가하는 등 1년 사이 두 배 이상 올랐다.

소득 상승에 비해 금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필수 결혼예물, 돌잔치 선물로 여겨졌던 귀금속의 수요 자체가 확연히 줄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날 오전 제주시 노령동과 연동, 이도동에서 운영 중인 금은방들을 방문해 보니 매장들은 모

두 한산했고 종종 금 시세를 묻는 전화 문의만 있을 뿐이었다.

제주시 이도2동에서 20년째 금은방을 운영 중인 안모(60대)씨는

“돌반지고 결혼예물이고 예전만큼 안 나간다. 요샌 반돈 돌반지나 1g 짜리 콩알금을 찾는 사람이 늘었다”며 “금 시세는 국제 경제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 우크라이나 전쟁(2022년 발발)이 터진 이후로 손님이 급격하게 줄더니 회복할 기미가 안 보인다”라고 했다.

연동에서 20년 넘게 문을 연 금은방 직원 A씨는 “금값이 오를수록 손님은 줄어든다. 2주 전만에도 한 돈 돌반지가 80만원대였는데 지금은 100만원을 웃도는 상황”이라며

“돌반지 가격이 너무 부담되다 보니 요새는 돌잔치에서 현금을 주는 문화로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금은방들은 저조한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 금 거래를 시작하거나 일반 피어싱류를 늘리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10년 넘게 귀금속업에 종사 중인 강모(60대)씨는 “귀금속업은 거의 저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돈을 팔아도 마진이 5000~1만원 정도라 매출은 계속 줄고 있다”며 “문을 닫은 금은방들도 많고 우리 가게도 귀금속만으로는 힘들어 최근에 순금 거래를 시작했고, 일반 피어싱류도 개수를 늘려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유리기자

## 제주도, 설 연휴 대비 강풍 취약시설 안전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연휴를 앞두고 겨울철 강풍으로 인한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풍 취약시설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0일까지 ▷ 옥외광고물(간판) ▷ 가설건축물 ▷ 건설현장(크레인·리프트) ▷ 전통시장 ▷ 전신주 ▷ 가로수 및 수목 등 강풍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설물의 고정 상태, 노후 및 부식 여부, 전도·탈락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 위험 요인을 즉각 조치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사고 우려가 큰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제도 안내와 홍보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5m<sup>2</sup> 이상의 간판은 신고, 10m<sup>2</sup> 이상은 허가 대상임에도 인자 부족으로 방치되는 무허가·노후 간판이 많은 만큼 안전점검과 함께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자율 안전관리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5년 자연재난 대응 결과 분석에서 강풍이 가장 빈번한 재난 유형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해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총 33회 중 강풍 대응이 15회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오소범기자

## 도내 장애인 90% “참여 희망 평생교육 없다”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고령 장애인 사회복지 욕구 분석’ 노후 준비 필요 사항 소득 보장·일상생활 활동 지원 꼽아

제주 지역 50세 이상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참여 의사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주 지역 고령 장애인의 복지 욕구 및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보건복지부의 2023년 등록장애인 실태 조사 중에서 제주 50세 이상 참여자 282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11개 영역의 주요 질문에 대해 전국과 비교 분석한 내용이 실렸다.

1일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응답

자 가운데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이 없다”는 비율이 90.4%로 전국(74.6%)보다 높았다. 전국에서는 문화·체육·예술 교육 욕구 응답률이 11.3%였지만 제주는 1.4%에 그쳤다.

평생교육 참여를 위한 지원 사항에서 제주 장애인들은 프로그램 홍보 강화(35.1%), 이동 지원(28.7%)을 많이 꼽았다.

단순 노무 종사자 비율은 51.7%로 전국(36.0%)에 비해 15%p 이상 높게 조사됐다. 일(직장)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은 낮은 수입이 30%대로 전국 공통 결과가 도출됐고 업무

과대로 인한 어려움은 제주가 13.5%로 전국(7.5%)보다 높았다.

장애인의 취업·직업 재활을 위해 국가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 제주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21.3%), 임금 보조(18.1%)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에 연구진은 단기적 관점의 정책 방향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보전 급여 제도의 확대 운영, 고령 장애인 쉼터 사업 확대, 사업 성격에 따른 기준 연령 유연성 보장을 위한 고령 장애인 지원 조례 개정 등을 제언했다. 중장기적 관점으로 장애 친화 의료기관 지원과 장애 유형별 욕구 기반 의료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했다. 진선희기자

## 상시근무 전환 효과… 조리실무사 경쟁률 2.3대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실시한 올해 첫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에서 결원이 반복됐던 조리실무사 직종에 지원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2026년 제1회 교육공

무직원 공개채용 결과 141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30일 밝혔다.

직종별 합격 인원은 특수교육실무원 27명,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 10명, 임상심리사 1명, 교육복지사 2명, 돌봄전담사 27명, 조리사

16명, 조리실무사 35명, 외국어교육 실무원 1명, 행정실무원 12명이다.

특히 이번 채용에서는 응시율 저조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조리종사자 직종에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 조리실무사의 경우 원서접수 결과 경쟁률 2.3대 1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채현기자

# 취임 축 승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해양산업과 회계재산관리과 공항확충지원과 소방안전본부 제주안전체험관  
사회복지협의회장 상하수도본부장 도로관리과장 상생일자리팀장 크루즈해양레저팀장 계약팀장 시설지원팀장 구급팀장 체험지원과장  
한국일보



고 관 용  
(하모리)



김 형 태  
(무릉리)



고 병 준  
(안성리)



양 기 호  
(신도리)



강 승 훈  
(신평리)



송 창 조  
(동일리)



백 영 호  
(신도리)



강 봉 흥  
(상모리)



김 승 숙  
(상모리)



문 찬 호  
(신도리)

자랑스러운 대정인으로서 취임·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 정 정 우 회 회장 김 군 학 외 회원 일동